

##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이달 구성

### 외부인사 영입 가능성 높아져 ... 10월부터 총추위 본격 활동 시작

총장후보자 추천 위원회(이하 총추위)의 교원·직원·대한불교조계종·동문·학부 및 대학원 학생 대표위원 선정 마감에 오는 22일(금)로 정해졌다. 각 구성원이 뽑은 대표위원을 22일까지 법인에 통보하면 이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사회인사 대표위원을 선정해 빠르면 9월 말, 늦으면 10월 초까지 총추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총추위는 10월부터 두 달 간 활동하며 12월에는 이사회에서 총장을 최종 선출한다. 이에 따라 교원의 경우 지난 13일 이과대학부터 각 단과대에서 학장 주재로 위원 선출이 시작됐다.

지난달 31일 열린 222차 이사회에서

결정된 최종 총추위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총추위가 추천하는 총장후보자가 '3인'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바뀌었다. 또한 동문대표위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사회인사 대표위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바뀌어 총추위 위원 구성은 △교원대표위원=21명(서울 11명, 경주 10명) △직원 대표위원=7명(서울 4명, 경주 3명) △대한불교조계종 대표위원=4명 △동문 대표위원=3명 △사회인사 대표위원=3명 △대학원생 대표위원=3명(서울 2명, 경주 1명) △대학원생 대표위원=1명(서울 1명) 등 총 42명으로 확정됐다.

선발된 총장후보자에 외부인사는 '가능한 한'에서 강제 포함하도록 됐다. 이

에 따라 외부인사의 영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총장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자'로 변했다. 굳이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불교에 대해 호의적이라면 가능한 것이다.

총추위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하는 방안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구성 및 해산 조항에서 '법인사무처에서 총장 선임 이사회 예정일 6주 이전에 결성 공고를 하고, 공고 2주 이내에 구성하며, 1개월 이내의 활동'은 모두 통합돼 '구성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의 활동'으로 바뀌었다. 총장후보대상자

추천기간은 삭제됐다.

최종 총추위 규정에 대해 법인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서약, 보직제한 조항에서 교원과 교원 외의 분리 등은 조항 간에 상치되는 것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사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 아닌가"라는 교수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장 선출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총괄하는 역할을 해 적임자를 뽑도록 한 것이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접근방식의 해석에 따라 생긴 듯하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편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정동일 중구청장 인터뷰

## “동국대를 꿈의 대학으로”



“잘 사는 중구, 행복한 중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취임 2개월을 맞아 포부를 밝히는 정동일 중구청장. 그는 우리학교 경영학과 북한학을 전공했고 행정대학원 석사 4학기에 재학 중인 우리 동문이다.

물물지친 대표이기도 한 그는 새로운 CEO 구청장으로서 중구를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한다. 특히 “교육환경을 강남 이상 가는 수준으로 조성해 자녀들의 미래를 밝게 열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속적인 학교개선사업은 물론 관내 대기업의 투자 유치로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의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 한다. 또한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인터넷 교육방송국 설립과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 등으로 강남 이상으로 교육수준을 끌어 올릴 것이라고 한다. “적어도 교육문제 때문에 중구를 떠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는 정 구청장.

“학교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교육에 강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학교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보다 넓은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청계천과 남산, 한강으로 이어지는 ‘그린웨이’와 연계해 국립극장 주변과 남산순환도로 밑자락에

“꿈의 동산”을 조성할 것이라고 한다. 올 9월 중 물밀작업을 시작해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며 청계천, 남대문, 동대문, 명동을 연계한 역사, 문화 관광지를 만들 것이라 한다.

그는 “이 ‘꿈의 동산’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동국대야말로 ‘꿈의 학원’, 즉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울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동국대와 중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97년 처음 관계를 맺고 우리학생들에게는 매학기 중구청장학을, 우리학교는 중구에 방과후 원어민 어린이 영어교실을, 그리고 오는 28일 열리는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우리 학교와 중구는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는 후배들에게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자신의 자리에서 성공하라”는 조언을 남긴다. 한편 “동국대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동문들이 사회에서 큰 기동수준으로 역할을 했으면 하고 중구발전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소속지역의 구청장으로서의 말도 잊지 않는다.

“동국대는 어떤 대학이라도 앞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랜 전통의 역사를 담고 새로운 도약을 해 경쟁력에서 살아남기를 바란다”는 정동일 중구청장.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 학교를 위해, 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를 지켜보자.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독도문제도 우리처럼” ... 우리학교 국제통상학과 학생들이 일본 메이지대학 학생들과 ‘독도 문제의 비평적인 해결방안-상대국 입장을 배려하는 측면에서’를 주제로 지난 14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후 다과회를 가지며 양쪽 학생들은 서로 악수를 하며 밝은 웃음을 나누었다. 최미혜 기자  
Imisonaral@dongguk.edu

### 2학기 수시 모집 마감

2007학년도 수시 2학기 모집이 지난 13일 마감됐다. 총 모집인원은 작년보다 101명 늘어난 1천 89명이며 지원자 수는 1만 4천 365명이다. 이번 평균 경쟁률은 13.22:1로 작년 평균 경쟁률 13.33:1에서 크게 변화는 없었다.

△일반우수자=685명 △불교계추천=74명 △군·경·소방·교도관 및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60명 △수학·과학과 우수자=56명 △외국어고·국제고출신자=40명 △외국어우수자(TOEFL, TOEIC, 독일어, 일본어능력, JPT, HSK)=69명 △실업계고출신자=65명 △문학재능우수자=5명 △체육재능우수자=5명 △체육특기자=30명 등 총 1천 89명을 선발한다.

최고 경쟁률을 보인 곳은 61.20:1로 문예창작학과 문학재능우수자 전형이었으며 일반우수자 전형에서는 공연예술학부가 78.65: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우수자, 불교계추천(일반), 군·경·소방·교도관 및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 실업계고출신자, 수학·과학과 우수자 전형의 1단계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전형은 다음달 21일을 시작으로 지원전형별로 진행된다.

### 박관호 교수 장학금 수여

2006학년도 2학기 박관호 교수(화학) 제자사랑장학 수여식이 지난 14일 2시 과학관 화학과문헌실에서 진행됐다.

이는 고(고) 박관호 명예교수가 우리학교의 기초과학분야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부한 기금으로 조성된 장학금으로 매 학기 수여되고 있다.

우리학교를 졸업한 수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물리학과 대학원생 중에서 학업 성적과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를 선정해 수여한다.

이번에는 △정예진(수학과 석사과정) △이해미(화학 석사과정) △손미영(생물학과 석사과정) △정진희(물리학과 석사과정) 양으로 각각 200만원을 수여받았다.

### 사과대 전공 설명회 개최

사회과학대에서 사회과학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전공 설명회를 개최한다. 동국관 L501에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사회과학부 학생들이 각 과의 특성을 잘 파악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취지로 열리는 것이다. 설명

회에 참가하는 학과는 정의, 경제, 행정, 사회, 북한, 신방 등 총 6개 학과이며 진행은 각 주임교수가 15~20분간 각 학과의 커리큘럼과 교수진, 졸업 후 진로 등을 설명하는 형식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전공신청서를 받아 이번 학기 학업지도교수 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 우리학교 체육부 점검(上)

## 체육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 4개부 활동 ... 재학생들의 관심 저조 아쉬워

우리학교 체육실에는 축구부, 야구부, 농구부, 골프부 등 4개 운동부가 있다. 이중 축구부는 1946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200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전국대회 우승을 했다. 최근 2년간 전국대회에서 우승 1번과 준우승 3번의 성적을 기록했다. 역대 대표 선수로는 김

승기(경영73졸), 김용해(체교81졸), 이상현(일어일문98졸), 안효연(체교01졸) 등이 있다.

야구부는 최근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장단 이래 첫 우승을 거둬 주목을 끌었다. 또한 지난 7월 대통령기 전국 대학야구대회 3위에 입상하기도 했다. 동국스포츠의 황금기였던 7, 80년대부터 김성현(체교82졸), 한대화(체교

83졸), 송진우(무역88졸), 이강철(회계89졸), 박한이(경영03졸) 등을 배출했다.

농구부는 1970년에 창단됐고 2003년 이후로 국제·전국대회를 통틀어 준우승 1번과 3위 4번의 성적을 냈다. 역대 주요 선수는 서대성(경영87졸), 이호근(경영88졸), 김승현(체교01졸)이 있다.

골프부는 2002년도에 신설돼 2년간 특기자를 선발해 선수 4명이 개인 전담 지도자를 두고 활동 중이다.

체육부 선수들의 체육·복지 시설로는 지난 학기 중에 기숙시설인 금강관이 개선되고 정보전락실이 마련됐다. 선수들은 개선된 복지환경에 만족하는 한편 체육시설 공간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축구부 김용해 감독은 “대운동을 축구부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부나 동아리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잔디구장이 아닌 흙바닥에서 연습을 해 선수들의 부상이 항상

염려된다”고 말했다. 야구부나 농구부 또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한 연습공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편 선수들이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해 처음으로 여름방학 중에 선수들을 위한 집중강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집중강의는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높이는 취지로 2주 동안 진행됐다. 강의과목은 선수들이 모두 체교과 학생이기 때문에 전공과목 위주로 진행됐다. 이에 축구부 최병삼(체교4) 주장은 “학기 중 훈련연습으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부분을 방증이라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집중강의 프로그램은 방학 때마다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선수들은 등록금 면제와 숙식 제공을 받으며 졸업할 때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한다.

우리학교 재학생 사이에는 체육부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 이창복(전자공1) 군은 “그동안 홍보 없이 지나오다 갑자기 야구부 전국 우승 소식이 학교 곳곳에 알려져 오히려 더 낯설다”고 말했다. 송혜영(사과대1) 양은 “재학생들의 운동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활발하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학교 측에서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주희 기자  
sonhee1347@dongguk.edu



발전기금 060-700-0119

느껴보세요!  
학문의 달콤함~

**제44회 동대 학술상 작품 모집**

-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사회과학상, 자연과학상
- 응모요령: 3개 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 시 상: 각 분야별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제2회 동대 문학상 작품 모집**

- 모집분야: 시부, 소설부, 희곡·시나리오부
- 응모요령: 시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희곡·시나리오부문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시 상: 시 장원 1명 50만원, 가작 1명 30만원, 소설부문, 희곡·시나리오부문 각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제 출: 10월 23일(월)~11월 10일(금)까지 직접·우편 접수 (전자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입상발표: 2006년 11월 27일자 동대신문(예정)  
☆ 문 의: 02) 2260-3491~2

100만원 50만원 30만원

동대신문사

# 총장선출제도 둘러싼 불협화음

## 교수회·직원노조 총추위 규정에 팽팽히 맞서

법인이사회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규정을 확정하고 각 구성원의 대표위원 선정이 이번주 금요일로 다가옴에 따라 총장선출제도를 둘러싼 학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1일 교수회(회장=이종욱·정보관리학)는 지난달 31일 이사회에서 개정된 총추위 최종규정을 '개악(改惡)'이라고 표현하며 "이사장의 권한이 강화됐고 위원회의 자율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사장과 위원장의 자의적 위원회 운영할 개연성이 내포됐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교수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직원노동조합(위원장=최기석, 이하 직원노조)의 한 집행부 관계자는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개정을 거듭하는 것은

문제"라며 "신중한 행보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인의 총추위 일정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열리는 집행부 회의에서 "총회에서 결의한 '총추위 반대'의 사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5월 23일과 7월 6일 2차례 비상 교수총회에서 나온 '총추위 참여 거부' 결의에 따라 지난 11일 '총장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선출 거부 요청' 공문을 각 단과대에 보내고, 각 교수들에게 '학장주도 교수회 불참'과 '개별 접촉 거부 및 신고'라는 교수회 행동통일 지침을 보냈다. 또한 13일에는 각 교수의 단과대 교수회 위원장 제출을 막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이사장 영배스님은 14

일 '이사회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교수회가 자치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법정기구인 이사회의 행정행위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학교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정함은 물론 학내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 교수회장은 "이사회는 성명의 자유를 막고 있다"며 "법적·행정적 절차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정치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교수회와 직원노조는 이에 '동국대학교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15일 총장후보 선출 선거 공고를 내고 5일 동안 각 캠퍼스 교수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일부터 8일간 선거운동기간을 갖고 28일에 선거를 한다.

한편 총학생회(회장=정성전·경영4)는 총추위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성전 총학생회장은 "교수회와 직원노조는 학교의 행정에 학생 참여를 반대하며 학교의 3주체 중 교수와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며 "차기 총장선출에 있어서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총추위 제도 역시 반기고 있다"고 밝혔다.

총동창회의 입장은 법인의 총추위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전 집행부 회의를 열어 총동창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 회전무대

## 장학과는 통화중

○...장학금을 받고 싶은 학생들은 글꼴을 귀찮아 한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장학금 수혜에 관한 공지가 올라오면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학생복지실로 전화해 장학업무 배로 늘리고 있다고.

학생복지실 장학과는 학생들과 상담하는 시간이 많고, 기간 내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은 곳인 만큼 빠른 일처리를 위해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만큼은 확인하고 문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장학지망생에는 난독증이 많아?"

## 이동불가

○...우리학교 학생들은 동국관, 학림관, 민해관 강의실에 들어가면 망부석이 되어야 한다고.

무슨 말이고 하니, 이번학기에 학생들의 신체에 맞춰 커진 새 책상들이 강의 인원에 맞춰 강의실에 채워지다 보니 학생들의 이동공간이 좁아 불편하게 되었다고.

새 비품을 들여놓을 때 강의실의 수용인원보다는 학생들의 수업과 이동을 위한 동선을 생각해 책상배치의 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강의실에서 느끼는 이코노미 증후군(!)"

## 일당백

○...참사랍봉사단은 만원이라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이번 가을학기 사회봉사 활동인원은 1,000여 명이지만 담당직원이 한 명이라 학생들의 효율적인 관리가 안된다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독립적인 센터를 운영하거나 인력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참봉선생님은 만인의 연인(!)"

## 까치밥

○...우리학교는 점심시간에 동물원이 된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음식배달을 시켜 먹은 뒤 다 먹은 그릇에 음식물을 남긴 상태로 방치해 쥐와 파리가 들끓는다고.

학교 측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식사 후 뒤처리까지 깨끗하게 해 쾌적한 학내환경 만들기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동국인의 미덕은 잔반 남기기(!)"

# 통계연보 제1호 발행

## 2002년부터 4년간 자료 담아

기획처(처장=심익섭·행정학)가 통계연보 제1호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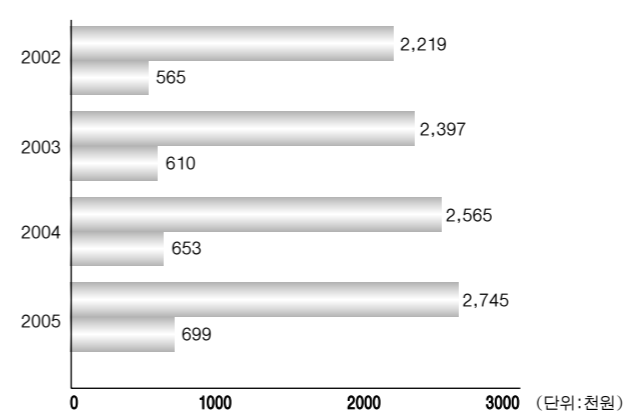
통계연보 제1호는 2002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통계 자료를 담고 있으며 2007년도에 발간될 통계연보 제2호는 2006학년도의 자료를 담으며 앞으로 1년 주기로 계속 제작할 예정이다.

기획처 심사평가팀의 조성환 직원은 제작취지에 대해 "통계연보는 교수, 직원 학생 등 전 구성원이 기본통계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발간됐다"고 말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몇가지 주요 통계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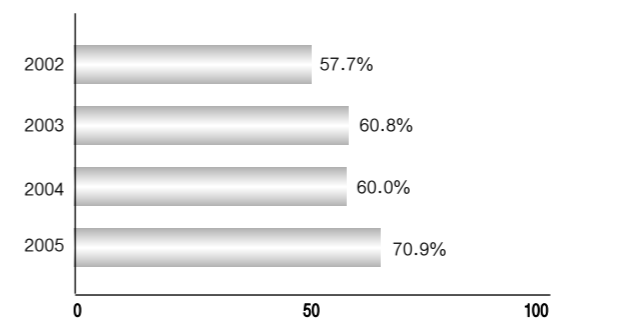
### ■ 학년·성별 재적생 현황

연도	입학 정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2,938	2,085	1,405	3,716	1,228	3,333	1,778	3,089	2,045	12,223	6,456
2003	2,938	2,165	1,437	3,603	1,366	3,346	1,639	3,183	2,124	12,297	6,566
2004	2,938	2,172	1,476	3,697	1,430	3,366	1,686	3,192	2,158	12,427	6,750
2005	2,938	2,052	1,487	3,661	1,490	3,410	1,630	3,207	2,141	12,330	6,748

### ■ 학생 1인당 등록금·입학금 현황



### ■ 연도별 취업률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 + 군입대) x 100  
(2005학년도는 취업률, 외국인유학생 수를 취업대상에서 제외함)  
\* 기준년도 예시 : 2005학년도는 2005년 8월 + 2006년 2월 졸업자의 2006. 4. 1 기준 취업률임)

# 오늘부터 생협 한가위 귀향버스 신청

오늘(18일)부터 5일간 생협에서 주관하는 한가위 귀향버스의 신청을 상륙 1층에서 받는다. 출발 날짜는 다음 달 3일이며 주요 광역시를 비롯한 총 23개의 노선을 지나간다. 출발 당일 상륙원에서 생협이 제공하는 무료식사를 마친

후 출발하며, 기념품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환복은 이달 25일부터 4일간 받으며 출발당일에는 여행사 보험관계로 접수를 받지 않는다. 학생들은 출발 다음날인 4일이 정상수업임을 유의하고 접수를 해야 한다.

# 2006년 한가위 귀향버스 노선안내

순번	권역	노선	일반고속 가격	조합원	비조합원
1	경상	부산	19,800원	10,000원	14,000원
2		울산	19,700원	10,000원	14,000원
3		마산	18,200원	9,000원	13,000원
4		진주-사천-통영-거제	18,800원	9,000원	13,000원
5	충청	청원-진해	18,400원	9,000원	13,000원
6		포항-경주	18,600원	9,000원	13,000원
7		밀양-양산-김해	20,000원	10,000원	14,000원
8		대구	14,600원	7,000원	10,000원
9	충청, 전라	김천-구마-거창-함양	12,500원	6,000원	9,000원
10		대전-영주-인동	8,400원	4,000원	6,000원
11		충주-문경-성주	10,400원	5,000원	7,000원
12		공주-논산-익산	10,800원	5,000원	8,000원
13	충청	대전	8,200원	4,000원	6,000원
14		청주-영동-옥천	6,600원	3,000원	5,000원
15		당진-예산-홍성	6,600원	3,000원	5,000원
16		서산-보령-서천	6,600원	3,000원	5,000원
17	전라	광양-여수	20,600원	10,000원	14,000원
18		순천-별교-고흥	18,900원	9,000원	13,000원
19		무안-목포	17,600원	9,000원	12,000원
20		광주	15,700원	8,000원	11,000원
21	강원	군산-정읍-고창	12,600원	6,000원	9,000원
22		전주-남원	12,900원	6,000원	9,000원
23	강원	원주-강릉-동해-삼척	14,900원	7,000원	10,000원
기타내용			원주 : 조합원 3,000원 / 비조합원 5,000원 적용		

\* 일반고속 가격대비 노선별 지역 평균가격의 50% 할인 / 조합원, 30%할인 / 비조합원  
\* 단, 각 노선별 접수인원이 20명 미만시 해당노선은 취소됩니다.

# 동약로

## 상실의 시대

"강의실에 들어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수업 받고 그 다음은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수업이 끝나고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교실 밖으로 나가기에 만 바쁜 학생들과, 다음 수업이 없더라도 형광등, 에어컨, 빔 프로젝트가 모두 켜져 있는 빈 강의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강의실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것인가.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시설 대관이 가능한데 동아리 공연 연습이나 스터디 등으로 강의실을 빌려 사용하고 뒷정리를 잘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학생들은 적지 않은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학교의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만 권리 뿐 아니라 학교 시설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행동에서 보여 지듯 그 의무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 보인다.

시설관리팀 박정훈 팀장은

"지난 여름 우리학교의 전기세가 약 1억 5천만 원이 청구되었다"며 "이것이 꼭 학생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우리는 스스로가 방치해 놓은 정리 안 된 교실과 그로 인해 쓸데없이 흘러 나가는 소중한 등록금을 생각해야 한다. 학교의 모든 시설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것'이다.

눈앞에 당장 거슬리는 것만 보고 불평을 하기보다 사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가 함께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작은 행동을 먼저 해 보는 것은 어떨까.

다른 누가 아닌 '나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 내가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도 영원히 내 꼬리표가 될 학교를 사랑하는 것은 거대한 프로젝트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학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학교 사랑은 시작된다.

류경화 기자  
jinghe86@dongguk.edu



비전있는 금융의 길... '금융증권사 취업전략 특강'이 지난 13일 열렸다. 이는 이과대학 육성사업의 일환 중 하나인 기업인사관리자 초청강연의 1회로, 한국투자증권 장도인 인사팀장의 강연이 많은 학생들의 참여 속에 진행됐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 9월 독서토론 프로그램

중앙도서관이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9월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번 토론회의 선정 도서는 정주영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이며 산업시스템공학과 박준업 교수의 진행으로 중앙도

서관 사회과학실에서 진행된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 교육' 코너를 통해 신청 받고 있다. 신청은 모집이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본 토론회는 교수 혹은 강사 1인의 진행으로 학생 토론자 10인이 선정된 도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 상륙원 식권자판기 설치

지난 16일 상륙원식당에서 식권자판기가 설치됐다. 이번 식권자판기는 현재 있는 카운터 옆에 2대가 설치되며 18일을 시작으로 시범운

영될 예정이다. 당분간은 카운터에서도 계속해서 식권판매를 해 새로 도입한 식권자판기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것이다. 식권자판기가 활성화 되면 학생식당 자판기와 동국관 식권자판기도 설치되며, 자판기의 개수를 늘릴 계획이다.

# 금주의 동국인

## 한발 앞서 새로운 출발하는 예비 07학번 신효경 양



는데 대학신문과 인터뷰를 하니 실감이 나네요"라며 수줍은 듯 말하는 신 양에게서 아직 여고생이라는 느낌이 들진 풍긴다. 미리와 본 캠퍼스가 조금은 낯설다는 효경 양에게 합격 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분을 묻자 "예정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발표된 합격 소식에 눈물을 흘렸을 만큼 간절히 원했던 일"이라며 기쁨이 컸던 당시의 상황을 떠올린다.

신 양은 평소 우리학교에 대해서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컴퓨터공학과 교육과정도 좋아 동국대학교를 택했다"고 한다. 본격적인 입시 준비를 하면서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고.

입학까지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신 양은 대학생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 무엇부터 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입시에서 벗어나 가장

해보고 싶은 일로는 '친구들과 함께 잘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섬들을 찾아 여행하기'를 꼽았다. 지금은 많은 영화와 책들을 통해 간접경험을 하고 있는 신양은 알찬 대학생활을 위한 준비에 바쁘다고 한다.

대학에서의 4년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라는 그녀. "구체적인 직업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이라며 "대학생활을 통해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고 꿈을 향해 달려갈거예요"라는 말에 예비 새내기 of 당찬 모습이 엿보인다.

목표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한걸음 앞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즐길 때는 즐기고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해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신효경 양. 내년에는 그녀에게서 고등학생의 순수함에 대학생의 열정까지 더해진 여대생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최미혜 기자  
Imisonaral@dongguk.edu

새로운 출발을 앞둔 사람에게선 항상 풋풋한 향기가 묻어 나온다. 시작에 대한 설레는 마음과 다부진 각오 때문이 아닐까. 아직 수시합격의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컴퓨터 공학과 예비 07학번 신효경(공문여고 3) 양이 풋풋한 향기를 가득 머금고 동약을 찾았다.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

동북공정 논란과 우리의 대안

동북공정은 21세기 신(新)중화제국주의의 산물

먹구름이 가득이나 흐린 하늘을 뒤덮고 있다. 곧 폭우가 쏟아지고, 우리소리가 우릴 기합하게 만들 것 같다.

중국인 사회과학원 산하의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2002년 5월에 '동북변강역사와 현상계열연구공정'이라는 약칭 동북공정사업을 발족시켰다.

초기에는 주로 고구려 역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구려는 우리나라 경내의 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며, 역대의 중앙왕조와 신속관계를 유지해 왔고 심지어는 고구려와 수·당간에 벌어진 전쟁을 국내전쟁 나아가 통일전쟁이라고 규정했다.

고구려의 전체 역사를 현재 및 미래의 국가발전전략에 합당하게끔 논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포장하여 자국의 역사 속에 편입시키려는 역사적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의 오해처럼 동북공정은 고구려역사와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학문적인 논쟁이 아니다.

동북공정 추진의 내막

필자가 초창기부터 지적했듯이 타임스케줄에 따라 진행되는 치밀하고 거대한 국책사업이다.

크게는 21세기에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세계질서 전략의 일환이며, 서북공정, 서남공정, 심원공정에서 드러나듯이 아시아에서는 신중화제국주의의 발현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논단

윤명철  
교양교육원 교수 · 역사학 전공

둘째, 동북공정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특히 만주 지역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만주 지역은 석유 등 자원, 소수민족문제, 영유권 등을 둘러싸고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속에서 모든 나라의 힘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정부는 만주지역의 역사적인 영토권마저 확보하고, 나아가 한민족의 동아시아 역할론을 희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거기서 우리에게 빼앗은 간도 문제, 러시아에게 빼앗긴 연해주 회복 문제 등이 동북공정의 중요한 의제가 된 것은 당연하다.

중국정부는 이 외에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 내부 계급모순의 심화에 따른 사회불안 등을 애국주의의 발양시켜 무마시키려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 북한에서 급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연구이기도 하다.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의 홈페이지에 실린 '조선반

도 형세변화의 동북지구 안정에 대한 충격'이라는 문건은 이를 알려준다. 중국은 최근에 동북공정의 내년 초 완료를 앞두고 일부를 공개했다. 그런데 우리의 반대와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고구려 역사는 물론이고, 발해 또한 전보다 더 확실하게 중국의 지방정권을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기자조선의 존재를 들먹이면서 한강이북의 땅도 중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소위 백두산공정을 본격 가동 시켰다.

유리한 고지점령 위한 정책

백두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주변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과 분점하고 있는 백두산이 중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며 추후에 발생할 간도문제 등 영토분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치적인 포석이다. 아울러 이 지역의 관리권을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부터 빼앗아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목적도 겹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와의 연대 필요

동북공정의 실체가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한 민족자존심의 차원이나 역사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미래와 연관시켜 정책과 고도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정치논리로 교활하게 접근하면서 중국주변의 베트남, 몽골, 인도차이나국가들, 인도 및 타지키스탄,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사연구와 활동을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은 역사는 관념이 아니라 집단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애정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쩌면 1차 당사자일 역사학자들은 우리 역사를 어떤 사관과 방식으로 연구해야 하는지, 이 시대에 필요한 역사학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뇌해야 한다.

동북공정은 한민족에게 회복불능의 상처를 남길 중화제국의 폭풍일 수도 있지만, 추모(추방)가 천 수백 년 간 잠들었던 호랑이를 깨우려고 미래를 향해 쏜 화살일 수도 있다.

사설

우리의 역사의식 되돌아 볼 때

중국의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이어도에서 벌이는 한국 측의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동북공정 논란에 이어 백두산, 이어도까지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역사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공식입장 발표는 한·중간의 영토분쟁 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간의 관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한국의 영토에 대한 비논리적인 주장은 이제 중단돼야 할 것이고, 중단되지 않는다면 우리정부 또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 벌어진 동북공정과 이어도 논란을 지켜보면서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로 인한 고구려사 왜곡에 관해 우리정부가 '유감'을 표현하고 이어도 발언에 대한 반박하기 이전까지의 과정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우리의 고구려사를 왜곡시키며 중국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역사이자 영토임을 주장하고 온 국민이 자료와 근거를 인식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나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

우리의 역사와 영토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과 여론에서 '뜨거운 감자'로 단기간 이슈화거리로만 남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정부와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이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서둘러 이뤄져야 하며 대학도 그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적극적인 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중 고구려와 동아시아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역사교육과정을 보다 심화해서 학생들이 이번 중국 동북공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후에 벌어질 수 있는 만일의 역사적 논란에 대비하고 '우리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반박할 수 있는 판단능력과 역사적 지식을 배양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학생들 스스로도 우리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지 말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켜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간직하고 보존하는 것은 남겨진 후손인 우리의 임무이다. 그런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의 역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하려는 노력이 하루 빨리 이뤄질 때 우리의 역사와 영토도 보존될 수 있다.

동북만평

이주현 niitake@dongguk.edu



대학발전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모색 필요

지난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6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2002년도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교교육비 비율은 7.5%이며 이 중 정부부담률은 4.6%로서 OECD국가평균인 5.2%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민간부담률은 2.9%로 OECD국가평균인 0.7%보다 월등히 높으며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전체 고등교육기관 중 사립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80%이상이며 이는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의 수업료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사립대학들이 예산과 학교운영에 대한 비용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수입

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다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투자가 늘리지 않기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현재 정부의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는 목적성을 띠는 사업에 대한 투자와 운영비에 투자로 나뉘는데 목적성 사업의 경우 BK21사업과 특성화 사업 등을 위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국 최수진 사무관은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운영비를 정부 측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립대학에 관해서는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사립대 지원에 관해서는 "재정지원 방식을 바꾸는 것은 전체 교육정책체제와 함께 바뀌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원지원 방식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교육연구구 백정하 연구소장은 "민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바로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고등교육관련 재정을 확대해서 확보해야 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재단, 기업들도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평준화 정책이 대학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각 대학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대학경쟁을 도모하지 않고 평준화 체제를 유지해 전체 대학의 발전이 뒤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은 지난 1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대학들이 투자를 늘리도록 대학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대학간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등록금 의존과 대학경쟁력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끊임없이 대학사회에서 문제시 되어왔다. 교육사업의 수용자인 학생들의 교육비 비용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그에 수반되는 교육의 질도 투자한 만큼 나오고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교육의 의미와 의무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효율성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대학전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강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2006년 2학기 집단상담안내**

'새로운 시작'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늘 시작은 늦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는가?

집단상담은 비슷한 고민과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자신의 탐색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고 함께한 집단 구성원들을 이해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소중한 만남의 장입니다.

▶ 집단소개 :

집 단 명	참 가 대 상	일 시
대인관계 향상집단 (초급과정 1)	내면세계의 형성배경을 이해하고 대인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색 해보고 싶은 동국인	매 주 수 4-6시
자아초월 집단 (심화과정 2)	내적갈등과 자아분열의 근본원인을 이해하고, 초월명상과 각성요법으로 자아 통합의 체험을 하고자 하는 동국인	매 주 목 6-8시 (집단상담 초급과정이자수자)

▶ 리더: 박범석 (에너저틱 전문가)  
▶ 기간 및 횟수 : 각 집단별 8회기씩 진행 9월27일 ~ 11월 23 일까지. 매 주 수(4-6시) · 목(6-8시)

▶ 접수 문의 및 장소 : 구내전화 : 3931 9월 27일 수요일까지 선착순 10명 접수(각 집단별) 본관 2층, 학생상담센터(집단상담실)

▶ 초급과정, 심화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은 집단수료증 발급

**학 생 상 담 센터**

**2006학년도 대학원 연구논집(36집) 발간 안내**

1. 목적  
대학원생의 학술활동 증진과 대학원의 학술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논집 원고 모집분야

모집분야	해 당 전 공
인문사회	불교, 철(인도철), 사, 미술사, 윤리, 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복원, 경제(농업경제), 경영(정보관리)학, 무역, 회계, 지리, 미술, 연극영화 등
자연과학	수, 물리, 화, 생물, 통계, 반도체과학, 공학, 농학, 임학, 조경학, 가평학, 체육학, 한의학, 의학 등

3. 원고제출  
가. 제출논문 기간 및 장소 : 2006. 9. 13(수) ~ 2006. 10. 13(금), 대학원 행정지원실 나. 제출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다. 제출서류 : 신청서1부(소정 양식), 원고 3부, 디스켓 1부 라. 원고작성요령 :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4. 원고심사  
가. 심사기간 : 2006년 10월 말 나. 심사위원 : 원고 1편 당 심사위원은 2인으로 하며, 원고 제출자의 소속 학과주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 심사방법 : 제출원고에 대한 심사는 가·부로서 하며, 심사위원 2인 중 1인이 「부」관정을 할 경우 해당원고는 연구논집 게재대상에서 제외한다.

**대 학 원**

**제8회 대학원생 우수논문시상(東院學術賞) 시행안내**

1. 목적  
대학원생의 우수논문을 선정·시상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여 연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실있는 학문종토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응모계열  
● 인문과학계열(예, 체능계 포함)  
● 사회과학계열  
● 자연과학계열(의학계 포함)  
● 공학계열

3. 응모요령  
가. 응모자격  
● 석사과정 : 본 대학원 재·휴학생 및 수료생 (수료 후 경과학기 5학기 이내인 자)  
● 박사과정 : 본 대학원 재·휴학생 및 수료생 (수료 후 경과학기 10학기 이내이며, 투고 당해 학기 연구등록을 필한 자)  
나. 응모기간 : 2006. 9. 13(수) ~ 10. 13(금)  
다. 제출논문  
1) 논문제출자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학술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석·박사 과정 입학 후 교내의 공인된 학회논문집(학술지)을 통해 발표된 것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논문이어야 한다.  
2) 공동연구의 경우 석사학위과정 제출논문의 연구업적누계는 70%이상이어야 하며, 박사학위과정 제출논문의 연구업적누계는 100%이상이어야 한다.  
3) 연구논문의 실적적인 비율 및 제출 자격

구 분	구 분	해 당 전 공
단독연구 또는 지도교수와 공동연구논문	100%	지도교수와 공동연구일 경우 제2자까지 제출 가능
2인 공동연구논문	70%	주저자인 논문제출 가능
3인이상 공동연구논문	50%	주저자인 논문제출 가능

라. 제출서류 : 별첨 참조.  
1) 신청서(추천서) 1부, (소정양식)  
2) 심사용 논문(Abstract포함) 각 4부(논문작성요령 참조)  
3) 디스켓 각 1부

4. 심사방법  
가. 1차심사는 비공개로 실시하며 1차 논문심사위원회에서 각 과정별 및 계열별로 3편의 후보작을 선정한다.  
나. 2차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을 대상으로 대학원 기술화술제 기간내에 동원학술상 공모논문 발표회에서 공개심사로 실시한다.  
다. 심사방법은 각 심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심사기준에 의거한다.

5. 시상내역 및 상금 (총 20편, 상금총액 : ₩20,000,000)

구 분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상 금
최우수상	계열별 각 1명				₩2,000,000
우수상	계열별 박사과정 각1명, 석사과정 각1명				₩1,000,000
진려상	계열별 박사과정 각1명, 석사과정 각1명				₩500,000
합 계					

● 금년도 동원학술상에서는 1차 심사 후 2차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신규 논문제출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투고료(100,000.-)를 지급토록 함.  
● 심사결과 우수논문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수상논문 출판  
동원학술상을 수상한 논문은 연구논집에 게재한다.

7. 주최 및 주관  
● 주최 : 동국대학교  
● 주관 : 동국대학교 대학원 · 대학원 총학생회

**대 학 원**

# 새로운 도전, 공모전을 잡아라!

## 경험과 취업기회 제공 ... 참가 전 다양한 정보 수집해야

“대학생들의 젊은 생각을 잡아라”  
개강 이후 각 기업과 협회에서 젊은이들의 신선한 생각과 시도를 잡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학생들도 개인별로 공모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참가하기도 하고 동아리와 학회에서 단체로 공모전에 참가하기도 하면서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이처럼 공모전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주된 관심거리로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공모전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함께 얻어지는 수상의 혜택도 알차다. 취업 공모전에 참여할 경험에 있는 취업연구회 ‘프론티어’ 회장 김주원(신방2) 군은 “연구회 학생들끼리 중국어를 공부하다가 공모전 수상혜택으로 중국연수혜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공모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 공모전 수상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취업준비를 위해 공모전 수상경력을 노리는 학생들이 많다. 각 기업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둘 때는 입사시 특전을 부여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공모전 참

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10회 가량 광고 관련 공모전에 참가했다는 천동준(광고홍보4) 군은 “공모전에 참가한 경험은 후에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되고 수상경력을 통해 인턴십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어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모전 참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경험이 대학생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모전이라고 무작정 참여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 될 수도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기 전에 공모전에 대한 정보와 준비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공모전 참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준비과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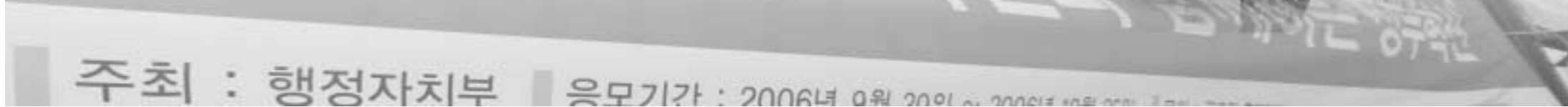
또한 취업 준비목적으로 공모전을 준비하는 경우 회사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자기가 참가하려고 하는 공모전과 취업희망 회사의 공모전 인정 기준을 잘 살펴보고 참가해야 한

다. 제일기획 인사팀의 한 관계자는 “제일기획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한해서만 3위 입상자까지 서류전형에서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은 따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대학생들의 젊고 새로운 시도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자 경험으

로 작용하고 있다. 공모전의 이모저모를 잘 살펴보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열정을 다해 공모전에 참가했을 때 좋은 성과와 함께 뜻깊은 경험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 길은 대학생 모두에게 열려 있다.

강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 공모전 ‘아는만큼 보인다’

제1회 대학(원)생 정부혁신 현상공모전
<p>참가대상 : 전국 2년제 이상의 대학(원) 재학생 모집분야 : 논문, 포스터, 플래시애니메이션, 포어 응모기간 : 2006년 9월 20일 ~ 10월 25일 기획의도 : 이번 공모전은 내부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을 위해 대학생들의 특색 있는 생각을 들여보고자 기획했다. 대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젊은 아이디어를 찾고 있어 무거운 이론보다는 일반인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선정된 작품은 정부 혁신을 홍보하는 데 각종 매체 광고로 활용되며 논문의 경우 정책수립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p>
제6회 서울특별시 사진대전
<p>참가대상 : 서울시민으로 만 20세 이상인 자 서울소재 대학 재직, 재학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응모기간 : 2006년 10월 17일 ~ 18일 기획의도 : 자유주제인 만큼 다른 작품과 확연히 들어나는 독특함이 있어야 한다. 선별작 중 15점 이상 획득한 사진은 추천작가로 지정되고, 추천작가로서 서울특별시 사진대전 및 공모전 작품 심사위원 자격을 갖는 혜택도 있다. 또한 선정된 작품들을 가지고 11월에 홍익대학교 전시장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p>
2006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
<p>참가대상 : 제한없음 모집분야 : 시설제 광고물, 창작성 광고물 응모기간 : 2006년 10월 12일 ~ 13일 기획의도 :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디자인을 기초로 한 옥외광고의 신기술과 신기자재 개발 보급의 의도를 가지고 기획되었다. 주변조형물과의 조화, 소재활용의 다양성, 상품성 등을 중점으로 해서 공모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11월 5일부터 이틀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전시회 예정이다.</p>

### ‘2006 대학생 금연 아이디어 공모전’ 동상 수상팀 동국아이디어뱅크

## “튀는 상상으로 이뤄냈어요”



김민규(생화공3) · 김정아(생화공3)

- ‘금연 팔찌’를 제작하게 된 과정은.  
= ‘동국 아이디어 뱅크’가 생긴지 4년 밖에 안돼 동아리의 발전과 홍보를 위해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1차 서류심사에서 아이디어를 통과해 야만 2차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도 조별로 나눠 좋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하루에도 몇 시간씩 회의를 하곤 했다. 6개의 아이디어를 냈지만 1차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것은 ‘금연 팔찌’와 ‘카운터형 담배 껍’이다.

- 본인들이 생각하는 ‘금연 팔찌’의 수상이유는 무엇인지.  
= 참가팀들이 냈던 발명품의 대부분은 담배 껍을 변형시켜서 만들었다. 그 중에서 ‘금연 팔찌’가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금연 팔찌’가 체형을 통해 니코틴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흡연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독특한 발상

이었기에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  
역시 공모전에서는 다른 작품들과 차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 앞으로의 계획은.  
= 앞으로도 각종 발명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11월에 일반학생들이 발명품을 전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동국발명전’을 주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 발명전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발명품을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

김리나 기자  
vik26@dongguk.edu

### 공모전 참가 노하우

## “자신감과 즐거운 마음이 비법”



이가영(광고홍보4)

20여 차례 공모전에 참여한 이가영(광고홍보4) 양은 ‘제21회 DCA대학생 광고 공모전’ 라디오 부문에서 ‘투인러브’로 장려상을 수상했고 ‘2003년 러브미(미) 광고마케팅 공모전’에 입상했다. 현재 광고동아리 ‘AD-rush’에서

활동하고 있다.

# 공모전에 임하는 자세  
상에 매달리기보다는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험을 값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착하기보다는 즐겁게 했다.

# 공모전에서 얻은 것과 어려웠던 점  
공모전 준비 자체가 바로 공부이다. 공모전을 하나하나 해낼 때마다 성장했다. 팀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수많은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도 생기고 리더십도 기를 수 있었다. 반면에 아이디어를 잘 모아다 마무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카피가 ‘잘

됐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

# 공모전 응모 노하우  
광고공모전의 경우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작품에서는 대학생만의 참신함이 중요하다. 광고가 세련되기보다는 완성도가 조금 떨어져도 기발함이 돋보이는 것이 좀 더 대학생다운 작품이다. 문구도 조금은 과장되게 쓰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내것이 최고’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저학년일 때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이 조금은 유리하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 2006년 2학기 추가촬영 일정 및 앨범비 납부 안내

- 일시 : 2006년 9월 19일 화요일 ~ 9월 25일 월요일
- 장소 : 실외(영진관 좌측 및 팔정도, 실내(동국관 L동 4층)

	10:00 ~ 12:00	12:00 ~ 13:00	13:00 ~ 15:00	15:00 ~ 17:00	촬영 단과대
9월 19일 화요일	보교과 전자공과 기계공과 사물생리공과 사물생명공학		인도화학 전기공과 건축공과 건축학	신학 사회환경시스템공과 생명·화학공과 사물공과	보교과 공대 생명자원과대
9월 20일 수요일	수학 반도체과과 국어국문과 국어국문과 영어영문과	정신사건 및 보직 조직원	물리학 통계학 영어영문과 사학 영어영문과	화학 생화학 생명·화학공과 영어영문과 법학	이과대 문과대 법대
9월 21일 목요일	교육원 지리교육과 체육교육과 사안학 영화·영상	촬영	국어교육학 수학교육학 불교미술 조소 조예창작	에스오교육학 가정교육학 한국학 연극	사범대 예술대
9월 22일 금요일	정치외교과 경제학 광고홍보과 국제통상과 컴퓨터공과		경영학 환경행정학 국제학 경영학 국제학 정보시스템공과	사회학 북한학 신문방송학 경영정보학 멀티미디어공과 신정보시스템공과	사회과학대 경영대 정보산업대
9월 23일 토요일	9월 19일 ~ 9월 22일 간 미촬영자 추가촬영				아간강과 촬영
9월 25일 월요일	9월 19일 ~ 9월 23일 무연 및 자연재해 시 해당 학과 촬영				

- 2학기 추가촬영 장소 및 유의사항
  - (1) 각 촬영 해당 학과는 촬영 전 20분 전까지 명진관 앞으로 집결 완료 (타 학과의 촬영 불가)
  - (2) 추가촬영 시 학과단체는 제외되며 그룹사진은 7명 ~ 12명으로 구성 요망
    - 졸업생 및 휴학생이 촬영을 원할 시 앨범 구입을 전제로 해당 학과의 촬영 가능
    - 단, 그룹사진 촬영이 필요한 경우 기간 중 수시로 촬영 가능
  - (3) 촬영종류 : 실외(프로필, 그룹, 동영상), 실내(이미지, 학사모, 증명사진)
- 1학기 본 촬영 및 2학기 추가촬영 IPSS 개인사진 확인 절차 안내
  - (1) 1학기 본 촬영 IPSS 확인기간 : 2006년 9월 5일 화요일 ~ 9월 17일 일요일
  - (2) 2학기 추가촬영 IPSS 확인기간 : 2006년 10월 18일 수요일 ~ 10월 20일 금요일
  - (3) 확인방법 : www.bravestudio.com 에 접속 후 앨범사양부 → IPSS CLICK
    - \* 자세한 방법은 졸업준비위원회 홈페이지 club.dguworld.com/dgu18graduation 방문 후 참고
- 1학기 본 촬영 및 2학기 추가촬영 증명사진 하수 및 배부안내
  - (1) 1학기 본 촬영 시 신청 증명사진 배부 : 2006년 8월 1일 화요일 ~ 10월 31일 화요일
  - (2) 2학기 추가촬영 시 신청 증명사진 배부 : 2006년 10월 23일 월요일 ~ 11월 10일 금요일
  - (3) 1학기 본 촬영 시 신청한 증명사진은 대부분 학과 4학년 과제 및 과 학생회장에 배

부를 전제로 전달 하였으나 과과제가 부재인 경우 졸업준비위원회에서 보관중이므로 졸업준비위원회에서 본인 명단 확인 후 졸업준비위원회(학생회관 1층 총학생회실 좌측)에서 수령 가능함

- 졸업앨범 / 기념품 비용 및 졸업사양비 납입방법
  - (1) 졸업앨범(DVD 포함) 및 기념품(학사모 액자, 풀리, 더블액자)비용, 졸업사양비 납부 안내
    - 졸업사양비(7,000원)는 교내 졸업준비 위원회에서 졸업식 전 4학년 기념품 제공에 소요되므로 납부를 요망
    - 2006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학생경비 부분에 고지된 졸업앨범비(69,000원), 학사모 액자비(19,900원) 납부
    - \* 기타 기념품(풀리, 더블액자)은 무통장으로 입금(계좌금 5,000원 제외 25,000원 입금)
    - \* 당일 실내 촬영하는 증명사진(39장)의 경우 신청과 동시에 제작비용 15,000원을 촬영 장소에서 납부
    - 2006년 2학기 조기 졸업자 및 미등록 휴학생은 무통장 입금 및 기타 방법으로 졸업앨범비와 기념품(액자, 풀리, 더블액자)비 납부
    - \* 기타 방법으로 입금 시 학사모 액자비 : 20,000원
    - \* 학사모+프로필 사진 풀리 : 30,000원, 더블액자 : 30,000원 자세한 사항은 (주)브라보 홈페이지, 졸업준비 클럽 방문
  - (2) 무통장 입금 안내
    - 제일은행 계좌번호 : 114-20-574703 정영주(18대 졸업준비위원회)
    - \* 입금 시 반드시 본인 학과 및 성명 포함 (ex) 통계김철수, 생화학이영희 (6글자 이상은 글자가 잘보이지 않음)
    - \* 입금 후 반드시 위원장 휴대전화로 본인 성명, 학과, 학번, 연락처, 금액을 전송하여 재 확인
    - \*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현금입금 외 기타의 방법으로 입금 시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 (졸업앨범비 수령시까지 보관)
- 기타 세부사항
  - (1) 실내 : 동국관 L동 432호, 433호, 435호 - 실외 : 명진관 정문 앞, 팔정도 주변 - 마이크 입 : 동국관 L동 426호
    - \* 헤어리깎기=30,000원, 헤어단풍=20,000원, 헤어리깎기+헤어=40,000원(대기 시 내일 캐어 서비스 및 헤어리깎기/헤어 수정 가능)
    - \* 헤어리깎기의 경우 촬영 전 예약 및 당일 이용 가능 (문의 : 02-548-1933, 1544-5688 → 메이크업 바탕 : www.makesupvatang.com)
  - (2) 문의
    - 졸업준비위원회 홈페이지 : club.dguworld.com/dgu18graduation
    - 졸업준비위원회 (외부) 02-2260-3613 (내선) 3613
    - HP : 011-9928-9061 (위원장 정영주), 010-6665-3509 (사무국장 모상준)

### 제18대 졸업준비위원회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금 확산사업

##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

가치나눔으로 취업역량을 키우고 고학력 인재로 거듭나고자 취업역량강화 '전문가 릴레이특강'이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이번 특강은 취업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취업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취업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1. 대 상 : 전학년(3~4학년 중심)
2. 접수안내 : 2월~10월 접수 :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선착순 접수 (본관 2층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재의원/교내 3935)
3. 모집인원 및 장소 : 희망 선착순 100명, 다양한 세미나실
4. 강의 내용 : 업계 전망 및 동향 / 업종의 특징 및 인재상 / 근무환경 / 주요업 무내용 및 분위기 / 취업전략(기본요건, 개인역량, 자격요건 등) / 질의응답
5. 프로그램 안내 및 행사일시 (시간: 17:00 ~ 19:00)

일	일시	내 용	강사명	소 속
1회	9월12일	서비스업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강태영	위귀회호텔 총지배인
2회	9월19일	IT직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지세근	삼성전자 인사팀부장
3회	10월10일	건설/중공업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김용철	대우건설 기획부장
4회	10월17일	영업직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김원구	LG생활화학 영업팀장
5회	10월31일	마케팅직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이준호	마케팅엔지니어 코리아 대표
6회	11월7일	경영기획직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이준호	롯데카드인사팀장
7회	11월14일	공기업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신기정	한국전력공사인력총원팀 과장
8회	11월21일	유통업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고병수	진로 인사업 과장
9회	11월28일	금융업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김덕환	신한은행 서대문점 지점장
10회	12월 5일	재무회계직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김창수	한국수력원자력 지점장 과장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 중앙도서관 9월 독서토론 프로그램 안내

-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교양역량을 강화함을 물론 독서토론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9월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독서토론 프로그램이란 : 학생(대학원생 포함)들과 독서토론을 원하는 도서를 신청받아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2. 일 시 : 9월 26일(화) 오후4시-6시
  3. 장 소 :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지하1층) 특수자료실
  4. 신청방법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관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토론도서 관련 동아리의 단체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 신청도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독서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토론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34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도서관

# 실크로드에서 찾은 인생의 의미

## 세월을 넘어선 거대한 자연 ... 자아 성찰의 계기

지난 6월 20일부터 6일간 우리 학교 학부생 10명, 대학원생 2명, 교수 4명, 교직원 8명 등 총 24명이 '건학 100주년 기념 실크로드 문화유적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답사에서는 생협의 생활문화사업 비로 전역을 지원받아 중국 돈황, 우루무치, 투루판 일대를 탐방하였다. 이 답사는 생활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 답사는 1학기 중 선발공과가 날 예정이다.

편집자

실크로드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은 이가 과연 있을까? 나 역시 꼭 한 번 곁이 펼쳐지는 사막을 걸으며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었다. 이런 실크로드에 대한 나의 바람은 생협에서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여 주최한 실크로드 탐방을 통해 이루어졌다. 손꼽아 기다리던 6월 20일에 마침내 실크로드의 관문인 우루무치를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

늦은 밤이 돼서야 도착한 우루무치는 더운 기운을 내뿜으며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국제공항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공항시설과 조금 다른 외모의 현지인들을 보며 난 모든 게 신기하고 즐거웠다.

이튿날 비행기를 타고 둔황으로 이동한 우리는 둔황박물관을 거쳐 명사산으로 이동하였다. 멀리서부터 보이는 거대한 모래산은 벌써부터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얼마나 꿈꿔왔던 순간인가'라는 생각을 하니 괜히 멍해

지기까지 하였다. 나의 작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모래사막을 보니 괜스리 감동적이었다. 그 모래사막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어보니, 그 한걸음도 소중하게 느껴진다.

사막사이로 뚫린 도로를 타고 우리는 막고굴로 향하게 되었다. 더운 공기를 느끼며 버스에서 내려 두리번거리다 거대한 바위산에 수도 없이 만들어진 굴들을 보며 매우 놀랐다. 석벽을 파서 만든 굴들은 이곳 둔황에 있던 불교신자들의 불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숫자는 자그마치 몇 천개에 이르렀다. 과거 사람들의 불심이 천년이란 세월을 넘어 내 가슴 속에 스며들었고 그 신앙 앞에 난 겸손해졌다. 모래바람이 불던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석벽을 파던 이의 가슴 속에는 오직 부처만이 숨쉬고 있었으리라.

둔황에서 투루판으로 가는 기차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의 연속이었다. 몸은 고단하지만 창밖의 풍경 때문에 눈을 감기는 어려웠다. 기차가 속력을 내며 창가의 풍경은 빠르게 지나갔다.

투루판의 강렬한 태양은 이곳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더운 곳을 말해주고 있었다. 고창고성과 교하고성에서는 눈부신 태양 아래 과거 이곳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느낄 수 있는 폐허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폐허들을 바라보니 인간의 노력이 조금씩 세월의 힘에 지워지고 있음이 느껴진다. 갑자기 천년이란 세월의 거대함이 밀려오면서 한없이 내가 작아진다.

사람들은 사막을 인생에 비유한다. 그 이유를 이제 회미하게나마 알 것 같다. 끝없이 펼쳐지는 척박한 땅, 강렬한 태양이 주는 갈증, 그 속에서 가끔씩 찾아오는 오아시스와 같은 행복. 그리고 사막의 눈이 시린 풍경과도 같은 인간의 삶 그 본질의 아름다움.

먼 훗날 까만 머리카락보다 하얀 머리카락이 많아졌을 때 어린 후배들의 손을 잡고 이 곳에 다시 오고 싶다. 그리고 이 사막을 바라보는 후배들의 까만 눈동자를 바라보고 싶다.

홍순천 (공과대 건축3)



### 달하나 천강에

### 대학생의 심신 건강



최인숙  
문과대학 철학과 교수

내 안에 갖고 있는 소질을 충분히 개발해 낼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현재의 자신보다 훨씬 우수한 능력의 소유자로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의 소질을 찾아내는 데 철저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소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해도 그 소질을 개발하여 밖으로 꽃피게 함에 게으르다. 청소년기에는 그래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못한 데 대해 낙담·좌절하면서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반성한다. 그러나 나이 30을 넘기게 되면 사람들은 대개 시간에 떠밀려 살아간다. 스스로를 점검하며 성찰할 여유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다.

현대는 각자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창조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 이전에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 삶이고 어떤 것이 성공적인 삶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일치하는 잣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기준이 매우 희미해졌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하는 문제 자체가 매우 불확실해진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명은 예전보다 훨씬 길어져, 과연 이 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현재의 젊은이들은 보통 90~100년의 수명을 누릴 것이다. 그 긴 시간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목표로, 첫째 자기가 좋아하면서 일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둘째 그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 건강이 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쉽사리 잊고 산다.

여기서 정신적 건강은 단지 심리적으로 문제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생을 충실한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일이 정신적 건강의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자기의 인생을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갈지,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삶의 형태인지, 그리고 장기간의 인생에서 자기자신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즐거움 및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잠시 성공적인 삶을 성취했다고 해도, 그러한 삶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에는 쉽사리 좌절하거나 절망하여 새로운 삶을 개척해나가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확실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마음의 중심, 자신의 철학을 확고하게 세운 사람이라면, 어떠한 난관이 닥쳐오든 잘 헤쳐 나갈 것이며, 또 난관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삶의 의미나 방향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록 인생 과정에서 우연적인 요인들에 덜 흔들리게 되며 또한 정신적 안정을 향유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당연히 신체적 건강을 중시할 것이며, 정신적 건강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특별기고 - 동국 100년의 회고담 ②

## 동국정신의 표상 곳곳에서 빛 밝혀



정중  
철학과 명예교수

우리신문에서는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정신의 역사와 의의를 되새겨보는 정중(1915~92세) 명예교수의 회고담을 3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정중 명예교수는 아흔을 넘긴 고령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기억력으로 동국의 '선두주자' 정신을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편집자

해방은 동대에게 선두주자 정신을 마음껏 그리고 신나게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선사한다. 해방 전에 평양의 숭실전문학교에서 국보적 역할을 준비하던 양주동(1903~1977)은 사제의 선두주자로서 동대의 얼굴이었고, 그가 잠깐 연세대로 떠난 뒤에 백총장이 그 대신 연세대에서 한국 영문학의 고봉이었던 최재서(1908~1964)를 초빙, 단 한사람을 위한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을 중앙강에서 성대하게 열어주는

최고의 예우를 함으로써 동대의 새 얼굴로 부각시키곤 했다.

한국전쟁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을 무렵, 목척산 기슭에 대동대의 터전을 새롭게 잡고 해방 후 한국건축계의 최대 걸작인 저 석조전(명진관)을 지은 일, "강의실은 천막이 대신할 수도 있지만 연구실은 반드시 지어야 한다"며 교수연구실 80개를 우선적으로 지어 승방처럼 숙식을 통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하니 이 패거 역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 다른 기적 하나는 '백성육박사 회감기념 불교학 논총'의 상재로 나타난다. 이 논저는 당대의 석학 40여명의 필자를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향후 50여년의 세월을 두고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해방 한국 최초의 출판물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분의 배짱도 배짱이거니와 그 당시의 동대교수의 역량도 무던하다.

이 출판물은 그의 필생의 작업인 '고려대장경'의 영인본 전권의 작업과 대개 대학 건물 한 채 또는 대가람의 대웅전 한 동 건립과 맞먹는 것이었다. 해방의 환희와 광명을 상징하는 이 동대의 금자탑은 60여년이 흐른 오늘에도 그 값어치를 잃지 않고 있는 즉,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여 영인본을 만들어 내 다시 반포할 필요를 새삼 느끼게 한다.

그렇건만 그분에게도 한계가 있었다. 내가 '약학대학을 세우세요'라고 진지하게 건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시 한국의 저널리스트 제1세대로서 우리 철학과에 동양철학의 한 파도를 맡고 출강한 서천 오종식(1906~1976)은 동양의 약학학을 겸임하고 있어 모교에 힘값으로 가져갈 것을

정원했건만 이것도 일축하니, 후진의 경희대학교가 쌍수를 들며 접수, 오늘의 한의과 대학의 원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뒤에 현재와 같은 스님들의 재단이 들어와 대학운영의 최고기관이 되었을 때 우석 의과대학이 역시 혈값으로 인수해 갈 것을 청원했으나 좌절되고 마니 이제는 고려대가 좋거나 하고 가져감으로써 연세대와 맞서는 숙원사업을 성취, 오늘날과 같은 명문대학으로서의 구색을 갖추게 되었으니 동대는 시종 의약 대학의 설립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한계를 드러냈던 것이다.

오호라! 애석할진저! 일찍이 한국에 그러한 선례가 비일비재했듯이 철학과가 없는 종합 대학이란 게 많았지만 의과대학이 없는 진정한 종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분들은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 천추의 한일뿐이다.

아무튼 그와 같은 운명적인 '한계'로 해서 선두주자의 피로써 얻은 자리를 후진자에게 양보하게 돼 일제 이래의 3대 사립대학의 위상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고, 이로 인한 대지진 때문에 반세기에 걸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선두주자의 위상탈환작전은 힘겹지만 하다. 선두주자 자리의 환상 속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이미 선두주자는 아닌 것이다.

동국정신의 표상인 선두주자 정신은 4·19를 맞아 다시 한 번 빛을 발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경무대로 처음 진격 한 것이 바로 우리 동대 데모대들이다. 이는 이제까지의 단순한 일상적인 데모행위를 정치적 역사적 혁명으로 일거에 국면을 전환시키는 선두주자의 성과를 가져오게 된다. 거기에 동대

가 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선두에 설 수 있었다는 지리적 조건도 유리하게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한국일보(4.20)는 도하의 어느 신문들보다도 앞서서 나의 '한국의 벽은 무너지다'와 '4·19는 진행 중이다'라는 원고를 게재했고 (당시의 문화부장은 신석조시인), 교수단의 '피에 보답하라!'의 구호의 데모와 하야성명 뒤에 나는 시대의 사진관을 뒤져 기록사진 20여장을 인수해 놓고 본즉, 동대 데모대원들이 손에 든 응원단 깃발 사진이 서너 장이 끼어 있었으니, 이 기록사진이 그날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도 남는다. (100주년 기념 전시장 전시) 물론 다른 대학생들은 숙대생 한 명을 빼놓고는 흔적도 없다. 이처럼 대혁명기의 정치현실 속에서도 동대생들은 선두주자로서 우뚝 솟아 히말라야의 또 다른 고봉을 이룬다.

6·3 사태를 피크로 한 일 조약이 체결령 하에 체결되자 구주대학 반더 포켓볼 졸업반 학생들이 '이러인'을 넘어 동대산악부와 합동으로 한라산을 등주한다. 뒤 이어 내가 단장이 되어 그들과 합동으로 엄동이의 일본 북알프스를 등반한다. 문자 그대로 한국 초유지사다. 훨씬 뒤에 동대산악부는 '마나슬루' 등정에 성공하고 귀국, 나의 대치동 아파트에서 환영잔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위와 같은 뿌리 깊은 전통의 토양 위에 동대출신으로 세계적인 알파니스트이자 타 대학 산악부가 명함도 들이밀지 못하는 히말라야의 영웅 박영석이 오늘을 기하여 동대산악부원들과 예베레스트 위에 동대의 깃발을 꽂게 된다. 100주년 기념축하는 문자 그대로 최고 최상의 향연이다.

### 이야기 동국 100년

### 전쟁에도 변함없는 학구열

#### ① 한국전쟁과 동국대학의 수난

해방 직후 좌우익으로 나뉘어 극한적인 대립을 벌이고 있던 한국사회는 단독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제1공화국이 수립된 지 2년도 채 안 되어 6·25 전쟁이 발발하고 말았다. 인민군이 서울 시내로 진입하면서 교문이었던 황건문의 편액(扁額)이 적군의 포탄에 맞아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대학 건물도 인민군에게 접수되었다. 도서관의 도서조차도 인민군이 휴지로 사용하거나 계급장을 만드는 재료로 활용하였다. 미처 피난하지 못한 교수들은 인민군에게 불려가 고된 심문을 받아야 했다.



부산 피난시의 교사(현 부산 대각사)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자 폐허가 되어버린 필동 교사는 빨빨이 흩어졌던 교수와 학생들이 하나둘 찾아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쟁은 급속히 악화되었고, 학교당국은 학적부를 잃은 반지(半紙)로 사본을 만들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김동화 학장은 12월 20일경 모든 서류를 대구시 남산동에 있는 동화사 별원으로 이주시키고, 대학본부도 그곳으로 임시 이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교부는 1951년 2월 19일 부산에 연합대학을 구성하여 피난 학생들로 하여금 합동수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우리학교 학생들은 그해 4월부터 부산·전주·광주·대전·대구 등의 전시연합대학에서 수업을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은 부산에 피난하고 있어 영도 해동중학교에 설치한 전시연합대학에 출강하고, 부산으로 피난한 학생들도 그곳에서 강의를 받았다. 그 밖에 대전·광주·대구·전주 등에서 수강하는 학생 수도 218명에 달하였다.

전시연합대학이 1년간 계속되자 학생 수도 점차 늘어났다. 이에 우리학교는 문교부에 단독 교료를 통보하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학생들을 모아 부산시 신장동 1가 6번지 대각사(大覺寺)에 임시 교사를 마련하였다. 임시 교사는 조선불교 중앙총무원의 경남교무원이 사용하던 6평짜리 사무실 1실과 회의실 겸 교수실로 사용된 3평짜리 1실 등 모두 24평에 불과하였다.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다. 많은 교수들이 납북되거나 행방불명되는 불운을 당하였고, 미처 부산으로 피난하지 못한 교직원들도 많았다. 그러나 한동안 마비상태에 빠졌던 대학교육은 재단과 학교당국의 노력으로 1951년 9월에 이르러 정상화되었다.

이용범  
소설가·동국 100년사 대표 집필자

# 열린글터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민화, 민방, 4대 분량의 글 등을 게재합니다. 채택된 문구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ac.kr  
 TEL : 2260-3491~2 FAX : 2279-1270

## 자아정체성 확립과 인간의 본질 추구

요즘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리얼리티쇼방식의 프로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리얼리티쇼는 평범한 현대인의 모습을 솔직히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보는 시청자가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런 프로의 인기에 힘입어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참여자들은 자신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남이 보는 나를 위해 자신을 포장하고 있으며 시청자 역시 대리만족과 함께 이들의 더 자극적인 모습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인간본연의 정체성에 대한 것은 관심 밖의 일이 되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 스스로가 자아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명확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아정체성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이들의 공통부분을 찾아보면 점점 더 발전되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화시대로 급속히 발전하면서 자아정체성에 관한 여러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으로 옛날의 1차적 관계에서 벗어나 불특정다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새로운 나의 모습들을 재발견하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식이 열여지고 인간과의 유대관계에 소홀해지기 시작한다. 현실을 살고 있는 인간이 아닌 사이버세계의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다.

현실과 사이버를 혼동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에 이중적인 면을 갖게

되고 이것이 더욱더 현실과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자아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간이 침해당하지 않아야 할 고유의 기본권이 지켜졌을 때에 본질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각 사회가 제대로 돌아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자신의 정체성은 인간이 이루기 위한 목표의 본질로 인간을 구성하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켜야 할 본연의 모습을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발달하는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 바탕이 이뤄진 다음에 우리가 사는 사회 역시 인간 본위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양명애 (사과대1)

# 학생논단

## 공교육의 정상화와 혼란 없는 안정된 입시제도 필요



정영희  
문과대 윤리문화2

지난 주 우리학교에서는 교복차림을 한 뜻밖한 고등학생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나도 수시로 들어온 터라 수시원서를 내러 온 그들이 내심 반가웠다. 하지만 그들을 보고 있노라니 '코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마음이 얼마나 초조할까'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안쓰러웠다.

지금 고등학교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물론 예전에도 그랬었지만 수우미양가로 등수를 가리는 절대평가였던 나 때

와 달리 상위 몇 %를 기준으로 1등급에서 9등급 나누어 상대평가로 평가제도가 바뀐 현 고등학교는 속된 말로 '피 튀긴 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내신 비중의 강화로 수능은 사실상 자격시험이 되어버렸다. 또한 서울대는 논술과 면접의 비중을 높여 이를 통해 당락이 좌우되도록 입시안을 계획했다. 물론 이러한 서울대의 발표가 교육부가 권장하는 사항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따라가야 할 학생들이다.

또한, 논술과 면접의 강화는 현 고등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이다. 공부만으로도 뻥뻥한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논술과 면접은 학생들을 학원으로 몰고 갈 것이 분명하다.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역주행 하는 것이며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도 크다.

한편, 힘든 경쟁 속에서 공부하는 고교생들을 비롯이라도 하듯 서울대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 영어 어학시험을 반

영하기로 밝혔다. 이 역시 공교육 발전에 저해된다는 학부모와 수험생의 반발로 지난 15일 공인어학시험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지 않겠다고 재발표했다. 토익, 토플, 텡스 역시 학교에서 이루어지긴 힘들다.

"너희는 공부하는 기계니까 감기에 걸려서도 안돼!" 라고 말하는 고3 시절 담임선생님의 말이 기억난다. 공장의 기계는 어떤 나사를 어떻게 조여야 하는지 정확히 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어떠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대학입시안에 학생들은 흔들리고 이와 함께 가정가계도 흔들린다.

대학에 들어가야 성공한다는 사회풍조를 없앨 수 없다면 '성공하는 길'이라 왜곡되어 있는 대학에 가는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자. 그리고 조금 더 욕심내 본다면 우리 고교생들에게 감기 한번 걸릴 수 있는 습 돌릴 틈을 주자.

## 새로운 문화의 경험 인생의 전환점 될 수도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에는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이다. 고정적인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나 강한 도전 의식의 부재와 일종의 나타함으로 인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 다람쥐 쳇바퀴 굴러듯 한 시간에 벌써 21살이 되었다.

실천 없는 생각만으로 하나의 성을 지을 수 없듯,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미비한 결단력으로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 않았다. 생각은 후회를 낳고, 후회는 지난날에 대한 자책을 낳게 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9월초에

열린 크로스오버 피아니스트 박심공연을 보러가게 되었다.

평소 피아노에 큰 관심이 없었기에 편안히 연주를 감상할 생각으로 자리에 앉았다. 피아니스트는 환절한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 뚜렷한 이목구비를 갖춘 호남형의 얼굴로 오프닝 전부터 관객들의 기대를 사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난 실력이 아닌 걸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생각에 연주를 듣기도 전에 거부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연주가 시작되면서부터 난 그의 열정적인 연주에 몰입하고 있었다. 건반을 눌러서 소리가 난다기보다

마치 그는 그의 몸속에서 그것을 뿜어내고 있는 것만 같았고, 내 가슴속에서도 뜨거운 어떤 것이 들끓기를 타고 머리끝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연주 내내 모든 신경을 무대 위에 쏟았기에 연주가 끝나자 약간의 아쉬움에 가슴이 허전했다. 지루한 일상으로부터의 탈피에서 오는 전율이 아닌 그것은 감동, 그 자체였다. 그 이후로 피아노에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었다.

평소 관심 없던 분야를 경험한다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괜히 정력을 낭비하는 일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듯 다양한 문화를 접하다보면 거기에서 당신의 있고 있던 감각이 살아날 수도, 크게 본다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전태성 (문과대 영문1)

## 현실에 충실하며 완연한 가을을 맞이하자

가을의 시작, 외로움, 고독감..... 9월의 이미지와 생각해 본다면 열추 맞아 떨어지는 단어들이다. 나도 사람인지라 9월의 중순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예외 없이 달라붙기 시작한 이 단어들, 실로 그러하다.

갑작스럽게 아찔 저녁으로 쌀쌀해져버린 날씨, 그로 인해 심적으로 느껴지는 스산함, 왠지 모를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진심을 느끼고 싶은 소망. 이렇듯 마음은 너무나도 배고프고, 허전하고, 심심하고, 쓸쓸하기 그지없다.

청송맞기도 하지만 혼자 버스 맨 뒷좌석 구석에 앉아 분위기가 있는 발라드 곡을 들으면 금방이라도 눈시울이 붉어질까 동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온갖 서러움이 밀려오면서 신세를 탓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순간만은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만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보면 이런 끝없는 생각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은 비단 특정한 사람만이 갖는 것이 아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 9월의 이 시기에 때때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듯 공허한 상념에 빠져 버리고 마는 것은 이제 막 시작된 가을의 분위기에 너무 젖어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을을 만끽' 하는 것을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저장시켜 놓고, 당연하다는 듯이 내 몸과 마음을 그 표현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9월은 마냥 가을을 타며 슬퍼하고 우울해 하는 달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여름에서 가을로 변하고 있는 이 달을 완연한 가을의 달인 10월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로 생

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선조들의 역사상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과도기적 시기는 불안과 혼란의 도가니였다.

하지만 이러한 혼동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 변화는 발전도 없이 실패하게 마련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계절이 변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사소하지만 이것 또한 변화다. 변화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제는 완연한 가을을 맞이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 너무 서둘러서 가을을 맞이 말자. 아직은 9월이지 않은가. 완벽한 가을의 계절인 10월이 오기 전에 우리 미리 가을을 타지 말자.

그저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또 그것을 즐기고 열정을 쏟아 붓고 바쁘게 살아가자. 자처해서 가을을 너무 일찍 불러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9월은 그렇게 소리없이 지나가고 말 것이다.

공은지 (사범대 교육2)



### 독자 사진첩

하루...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실 안. 하루동안 쌓인 피로를 손잡이에 기대며 스스로를 다독여보려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은 더 열심히 즐겁게 살자.'  
 - 홍의찬 (사범대 수교2)

### 보리소

## 명품 또는 사치품

요즘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들 중에 '명품'이란 것이 있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명품족, 워장녀, 가짜 스위스시계 등 최근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의 한가운데 이 용어가 자리 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버버리, 샤넬 등 해외의 유명 브랜드 제품들은 럭셔리한 제품(luxury goods)으로 분류되고 있다. 아마도 '명품'은 이 럭셔리한 제품(luxury goods)의 번역인 듯한데, 다분히 의도된 번역이 아닐까 한다.

기본적으로 사치스러운 또는 호화스러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럭셔리(luxury)

가 어느 순간부터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명품'으로 둔갑한 것이다.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움으로 가득한 생활이 그 사람의 삶을 인간적으로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제품들은 '명품'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사치품'일 뿐이다.

하지만 사치품이 명품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명품들을 '소유'해야만 내 삶이 윤택해지고 가치가 있어질 것이란 환상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명품'이란 용어는 상업적인 마인드에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순수니빠빠에는 마라와 붓다의 대화가 전해지고 있다. "소 주인은 소 때문에 기뻐하고, 아들이 많은 사람은 아들 때문에 기뻐한다. 소유에서 기쁨이 오니, 소유가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다"란 마라의 이야기에 붓다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소 주인은 소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들이 많은 사람은 아들 때문에 괴로워한다. 소유에서 괴로움이 오니, 소유가 없는 사람은 괴로워할 것도 없다." '소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다.

황순일  
 불교대학 인도철학과 교수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다양한 정보로 동국인의 동반자 되길



지난호 동대신문의 가장 큰 이슈는 야구부의 전국대회 우승이었다. 동대신문은 학교 야구단의 우승소식을 자세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였으며 이번 전국대회 우승은 동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하였다. 이번 쾌거는 열악한 운동환경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임을 알려주었고 체육부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주었다.

기획면에 쓰인 현책방 탐방은 대학생이면 누구나 고민해봤을 교재의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현책방을 가고 싶어도 현책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용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부 현책방에 대한 지나친 홍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하였다.

보리수에서 다룬 개성을 잃어가는 교정에 대한 기사는 많은 공감을 느끼게 하였다. 교정이 고유의 개성을 잃고 정형화 되어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문화면에 실린 연극학과의 워크샵 공연소식은 문화적 감응에 빠진 이들의 감응을 해 소시주 뿌리라고 생각한다.

동대신문에서는 단순히 지면상의 기사 외에도 많은 정보를 얻

게 된다. 지난호의 신문 하단부에는 세미나 개최, 학사사관 모집, 독서토론 안내 등 다양한 공지사항을 실었다. 바쁜 학교생활로 인해 지나칠 수도 있는 여러 공지사항들을 본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 만족스러웠다.

동대신문에 바라는 점이라면 타 단과대의 소식을 지면에 실어 여러 단과대간의 소식을 알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동대신문은 학교를 대표하는 신문이어서 대부분 학교전체의 소식을 위주로 전하는 경향이 있다. 동대신문을 통해 타 단과대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여러 단과대간의 정보교환에도 유용할 것이고 의사소통도 수월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학교를 대표하는 신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기사, 유용하고 알찬 기사로써 동국인의 학교생활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양범우 (이과대 수학2)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 향
월 (9/18)	참치캔비빔밥 (2000) 오심볼고기 (2000) 계란햄볶음밥&김치비빔국수 (2000)	갈비경단백반 (2000) 쇠고기양송이볶음밥 (2000) 참치김치덮밥&계란후라이 (2000)	된장찌개 (3200) 순만두국 (3500) 코다리무조림 (3500)	김치계란국 (2000) 칠면재육볶음 (2900) 짬뽕백반 (2500)
	순두부찌개백반 (2000) 미트볼하이라이스 (2000) 인동찜닭 (2000)	부대찌개 (2000) 달걀비해물볶음 (2200) 탕수육 (2000)	아채죽 (3200) 통대매운탕 (3500) 제육볶음 (3500)	애호박고추장찌개 (2000) 평양식비빔밥 (2900) 사골우거지국 (2500)
	쇠고기해장국 (2000) 어묵볶음밥&닭양념꼬치 (2200) 불고기 (2000)	설렁탕 (2000) 제육김치볶음 (2000) 오무라이스 (2000)	된장찌개 (3200) 김치불고기술밥 (3500) 갈치구이 (3800)	사골된장국 (2300) 사리곰탕 (2900) 순대볶음덮밥 (2500)
목 (9/21)	열무비빔밥 (2000) 해물자장덮밥 (2000) 두부김치 (2000)	오징어무국&피망잡채 (2000) 쇠고기카레라이스 (2000) 불고기비빔밥 (2000)	된장찌개 (3200) 돈가스 (3500) 날치알새싹비빔밥 (3500)	오징어무국 (2300) 치즈김치볶음밥 (2900) 징터국밥 (2500)
	짬뽕수제비 (2000) 치즈돈가스 (2500) 해물덮밥 (2000)	닭개장 (2000) 해물굴소스볶음밥 (2000) 돈육계란조림 (2000)	된장찌개 (3200) 감자탕 (3500) 낙지볶음 (3800)	어묵김치국 (2000) 닭조림 (2900) 비론드카레라이스 (2500)

# 대학생! '그들'만을 위한 문화공간



▲ 학생회관 소극장



▲ 학림관 소강당 입구



▲ 학림관 소강당 내부

학교 안에서 우리는 대학생들의 '꿈'과 '끼', 그리고 '열정'을 엿본다. 학의 공간에서도 손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지만, 학내 문화 공연은 우리의 시각과 손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학교는 학업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온전히 '대학생에 의한'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한' 문화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학내 문화 공간이 필요하므로 각 대학은 이러한 학내 문화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다.

건국대의 경우 중강당과 소 공연장, 다목적 연습실 등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건국대 총무처 봉상철 직원은 "학생들에게 무료로 대관하고 있고 거의 매일 대관될 정도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학교의 경우 현재 본관 중강당, 문화관 예술극장, 학림관 소강당, 학생회관 5층 소극장 등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문화 공간이다.

본관 중강당에서는 주로 학교 행사를 치르고, 그 외의 공간을 통해 학생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상업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학생들에게 공연장을 무료로 대관한다.

그렇다면 우리학교의 문화공간에 대해 학생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극예술연구회 이근혜(영어통번역2) 회장은 "학생회관 5층 소극장을 극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소극장 조명을 새로 설치해 준 대신 다른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 무료로 대관한다. 하지만 조명에 소요되는 비용 등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기본적인 장소 대여 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학생들의 이용이 비교적 적은 학림관 소강당에서 모의 법회 준비를 하고 있던 강수길(법1)

둘러야 한다.

현재 공연을 위주로 하는 학림관 소강당과 학생회관 소극장의 경우 월 평균 5회 내외로 학생들의 이용이 많지 않다. 소극장과 소강당의 시설을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시킨다면 보다 질 높은 문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학교의 문화 공간은 규모상 타 대학의 거대한 장소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 활용만으로도 얼마든지 효과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 학내 문화공간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생활 도모

군은 "오늘 처음 소강당에 와봤는데 마이크가 고장나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강당을 처음 가보는 학생들은 입구를 찾기가 힘들고, 산만한 대기실과 낙후된 주변 환경을 문제로 꼽았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자주 찾지 않는 공간으로 방치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학교는 캠퍼스의 여건 상 무리하게 공간을 늘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눈을

학교가 적절하고 충분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그 장소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교내에서 공연 및 관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학생들과 만났을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학내 문화 공간. 우리들의 열정으로 가득 찬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공간을 기대해 본다.

류경화 기자  
jinghe86@dongguk.edu

## 메아리

### 식자우환

▲ 신은 '모두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최초의 여성 판도라를 인간 세상에 내려 보냈다. 여자는 만물 중에서 가장 완전해 보일만큼 신들에 의해 아름답게 꾸며졌지만 모든 걸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이 너무나 강했다. 그런 판도라에게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의 상자를 건네주면서 절대로 열어보이면 안 된다고 당부했는데, 여기에는 인간을 벌주기 위한 신의 분노가 숨어 있었다.

▲ 지난 7일 행정법원이 학교별 실력 차가 담긴 수능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입장은 고교별 실력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만약 수능 성적이 공개될 경우 고교별 학력격차가 확연히 드러나 학교 및 지역의 서열화와 등급화는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학교별로 성적차가 명백히 드러나면 성적이 낮은 학교의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불어 이미 대학이 서열화 된 한국사회에서 전국의 학교가 '1등부터 꼴지까지' 일렬로 세워지는 것은 볼 보듯 뻔한 일이다.

▲ 과연 고교평준화 논의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은 무엇일까. 비록 '연구 목적을 위해서'라는 단서는 붙었지만 그 파장은 상당하다. 수능 성적은 그 과정을 생략한 채 오로지 결과만을 말하는 지표로, 오히려 학교서열화를 고착화시키고 공교육을 일방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몰아갈 우려가 있다. 또한 교육에 영향을 주는 다른 외적 요인들을 무시한 채 획일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이나 점수 공개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지금 선부른 공개는 말 그대로 '시가지조'이다.

▲ 어느 날 에피메테우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 판도라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상자를 열고 맡았다. 순간 질병, 슬픔 따위의 온갖 악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뒤늦게 판도라가 잘못을 깨닫고 상자를 닫으려 했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수능 정보 공개의 '열쇠'는 판도라의 그것과 일맥상통한다. 상자를 열 때는 신중하게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 있다.

정은미 문화부장  
eunmi@dongguk.edu

## 문화예술인 그리고 동국



촬영감독 정정훈(연극영화 97졸)

시선의 높낮이와 각도에 따라 동일한 사물이라도 다르게 보이기 마련이다. 영화 또한 감독의 눈이라는 뷰 파인더로 본 공간이 프레임 속에서 다채롭게 만들어진다. 정정훈(연극영화 97졸) 동문은 화려한 기교 없이도 다양한 신을 카메라에 표현해 낸다.

그와 영화의 깊은 인연은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듯하다. 어린 시절 아역배우 생활로 현장을 일찍 접해 보았고 졸업 전 이미 작품 '유리'로 촬영감독에 데뷔했으니 말이다.

정 동문의 촬영에서 기교와 앵글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배우의 감정을 카메라를 통해 얼마나 잘 읽어낼 수 있는가'이다. 배우의 울

음이 카메라에 그대로 묻어날 때 비로소 영화는 배우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이다.

그는 "영화 '올드보이' 중 오대수와 이우진이 대면하는 장면에서 배우와 카메라의 정서가 일치해 시간이 지나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배우의 감정을 카메라로 포착하고 편하게 촬영장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한편, 그는 '감독에게 필요한 재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감각과 분석적인 시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한다"고 말했다.

즉, 좋은 영화인가의 여부는 '틀을 깰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서 결정된다.

이어서 정 동문은 총무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대학 시절에는 영화계에 뛰어들어 치열하게 배

우기보다는 우선 다양한 것을 경험해라"라고 조언하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영화 속에서 값진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영화는 스스로 자신있게 담낼 수 있는 영역이자 즐길 수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카메라와 촬영기기로 둘러싸여 바쁜 가운데서도 그가 환하게 웃으며 작업할 수 있는 것도 이때문이 아닐까.

배우와 카메라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관객과 만남으로써 새로운 재구성된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장르와 다른 영화를 해보고 싶다는 그가 새로운 분야에서도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승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 카메라 렌즈로 바라본 다양한 세상



동대신문 제1429호(9월 4일자) 7면 신규교수 포로필 중 이과대학 생명과학과 정상민 교수의 '서강대 생명과학 석사'를 '서강대 생명과학'으로 정정합니다.

# 내가 만든 사이버 세상

## UCC 열풍 ... 대안으로 CCL 등장

User Created Contents

Creative Commons License

“나도 모르는 사이에 2006년도 키워드를 경험하고 있다?”

‘공급자 중심’에서 ‘창작자 중심’으로 인터넷 환경이 변화하면서 우리는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게시판 댓글에서부터 영화 포스터 패러디, 조삼모사 시리즈 등 블로그나 카페의 창작물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하지만 UCC가 동영상 중심으로 활성화 되어 있고, 동영상이 UCC를 대표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UCC가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각 포털사이트들은 독립동영상업체들을 통해 개인의 영상을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언론사 역시 이를 서비스하여 향후 미디어 전략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그런가하면 동영상 포털사이트 ‘옴군’, ‘판도라TV’, 1인 미디어 공동체이자 데일리 매거진 형태의 ‘블로터넷’, 개인이 만든 영상 콘텐츠를 사고 팔 수 있는 ‘픽스카우’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UCC는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인 만큼 개인이 수동적으로 창작물을 받아들여던 시기에서 벗어나 향유중인 동시에 생산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과거에는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수만이 콘텐츠를 생산해 냈다면 최근의 UCC는 제작 방법이 쉬워지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다.

그런데, UCC의 최대 결림돌은 저작권 침해 여부이다. 이를테면 몇 해 전 P2P 사이트를 통해 불법파일 공유가 이루어졌듯이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UCC 콘텐츠

공유도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최근 발간한 ‘UCC시대의 저작권’에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CCL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것으로, 크게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으로 분류된다. 이를 통해 정보의 공유와 저작권 보호의 상반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한편, 현재의 UCC는 순수 창작물이 적고 오락, 영화, 스포츠 등 흥미 위주의 장르에 치중되어 있다. 이는 흥미 위주의 콘텐츠가 대중으로부터 쉽게 눈길을 끌고, 다수가 그것을 모방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익배분의 문제 해결과 다양한 기술적인 뒷받침을 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양질의 콘텐츠생산은 어려워질 수

### 동국블루스



있다.

UCC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물론 블로그의 활성화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술의 간소화 등이 뒷받침 되었지만 그 이전에 대중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그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담아내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터넷 업계 블루오션의 중심에는 이제 대중이 서 있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 매체비평 **광고편**

#### 메가팩스 ‘잠자는 젊음’ 편 광고의 소비는 소비자의 몫

최근 TV전파를 타기 시작한 메가팩스 ‘잠자는 젊음’ 편 광고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창작자 중심의 사용자제작 콘텐츠(UCC=User Created Contents)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public)와 시민(citizen)의 합성어인 퍼블리즌(publizen) 쪽을 대변하고 있다. 스케이트보드 위나 우체통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젊은이들을 메가팩스 캐릭터인 ‘메가켓’이 깨우면서 시작하는 이 광고는, 잠자는 젊은이들에게 인터넷 세상으로 나와 자신의 꿈을 펼치라고 독려한다고 한다. 잠든 젊은이는 인터넷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잠재 유저를, 그들의 복장은 젊은이들이 지향하는 꿈과 취미 특기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럴싸한 설명이긴 했지만 상상력이 부족해서 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편하게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나오는 15초짜리 광고를 내가 굳이 이런 해석까지 곁들여가며 이해해야 하는가? TV광고만 하더라도 하루에 족히 수 백편은 자신을 보아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혹 접하는 광고라도 우리에게 제작자의 의도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기억되어지는 광고는 몇 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광고를 제작한 이는 자신을 기억해주고 좋아해주길 바라겠지만 그 의도는 곧잘 빛나간다.

광고는 문화를 반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문화를 선도해 나가기도 한다. UCC나 퍼블리즌과 같은 시대의 흐름을 적극 반영한 이 광고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 이 광고는 제작자의 의도가 앞서있다는 느낌이다. 광고제작물을 하나의 작품으로 간주한다면, 이미 제작된 광고는 제작자의 손을 떠났다. 즉, 전파를 타는 순간 광고의 이해와 기억 등은 광고를 접하는 ‘광고 소비자’의 몫이다. 접하는 광고를 이해하고 좋아하고 기억하고 하는 등등의 광고 효과는 광고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를 접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고흐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떠한 메시지를 담으려 했는지 난 굳이 찾아보지 않고 이 그림을 본다. 감상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몫이고, 내가 그 그림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느끼면 되는 것이다. 이 느낌은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 다를 수 있다. 아니 어쩌면 고흐는 해바라기에 아무런 메시지를 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잠자는 젊음’ 편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젊은이들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이내믹하고, 시선을 끌며, 타사가 속도를 앞세운 카피를 들고 나온 이 시점에, 업계의 선두주자답게 인터넷을 통한 젊음의 실현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 등이 신선하다는 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혹자는 말할 것이다. “당신은 우리 광고의 타깃이 아니라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잠자는 젊음’이 타깃으로 삼은 젊은 동국인 여러분들은 어떠한가? 과연 나만 세대차이로 인해 젊은이들의 이해의 지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김효규  
사회과학대학 광고홍보학과 교수



## 저예산 · 급제작의 UCC 현장을 찾아가다

‘은하철도 999’의 메텔이 전철을 타고 영화 ‘가위손’의 에드워드 손이 가위가 아닌 망치라면... 이런 황당하면서도 재미있는 상황이 ‘푸러기 스튜디오’에서는 일어난다. 푸러기 스튜디오는 가위손을 패러디한 ‘망치손’, 은하철도 999의 실사판 ‘은하철도999’ 등 지금까지 여러 편의 작품을 탄생시켰다.

사장 백승기(인하대4) 군을 중심으로 고정배우 이한준(인하대3) 군, 디자인 염규성(인하대3) 군까지 총 3명이 시나리오부터 편집까지 모든 작업을 하고 있다. 때때로 부족한 배우나 제작진은 학교 안에서 해결한다.

이번에 그들은 박근혜 피습사건을 패러디했다. 미술 작업실에서 촬영에 필요한 소품을 만든다는 백 군은 작업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주인없는 물감과 붓으로 글씨를 큼지막하게 쓴다. 박근혜 대표를 ‘막그네’로 한나라당을 ‘한나라당’으로 표현했다. 곧이어 이 군과 함께 밖으로 나가 야구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소리

친다. “나 좀 도와줘”라고. 즉석에서 캐스팅이 이루어진 것이다.

주인공을 맡은 백 군이 분홍색옷과 꽃무늬 남방으로 갈아입고 뽀글뽀글한 가발로 분장을 마쳤다. 간단한 캠코더 사용법을 좀 전에 캐스팅한 후배에게 가르쳐준 뒤, 캠코더에 빨간 볼이 들어오면서 촬영이 시작된다.

이번 시나리오는 박근혜가 지방유세 도중 괴한의 습격을 받고 얼굴에 큰 상처가 남는 장면이다. 막그네 역할을 맡은 백 군이 천천히 스탠드를 올라가며 청중에게 인사를 건넨다. 그때 갑자기 괴한이 달려들어 칼로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그었는데, 칼은 매직으로 대신했다. 경찰이 괴한을 저지하고 부상당한 막그네를 청중들이 부축한다.

이처럼 그들의 영화는 주제만 평소에 구상할 뿐 소품 준비에서부터 배우 캐스팅, 촬영은 즉석에서 삼십분 이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대본도 없고 조명도 없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환경을 활용한다.

최근 백 군은 영화제작뿐만 아니라 미디어 교육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현재 스페이스빌의 ‘푸러기 영화공작소’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곧 교사를 대상으로도 강의할 예정이다.

영화는 유명한 배우와 첨단 장비로 작업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들의 영화는 실제 영화제작에서처럼 흥행이나 자본 등의 제약이 없어 자신들이 구상한 주제를 자유롭게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 백 군은 “영화제작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핸드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으로도 얼마든지 짧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 푸러기 스튜디오 속의 영화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주변과 삶 속에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영화인 것이다.

이승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